

해남 4개 한우 농장 저탄소 인증 '전국 최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 첫 시행...온실가스 10% 이상 감축시 인증 함평3·강진1·진도 1곳 등 전남 9곳...내년부터 양돈·낙농 확대

해남군이 올해 처음 시행한 정부 '저탄소 축산물 인증' 사업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4개 한우 농장을 배출하며 '저탄소 농업 중심지' 조성 계획에 성큼 다가갔다.

온실가스를 농가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줄인 이들 인증 농장은 앞으로 '저탄소 인증마크'를 달고 대형마트 등 판로를 넓힐 계획이다.

9일 해남군에 따르면 국내 최초로 농림축산식품부 저탄소 인증을 받은 전국 27개 한우 농가 가운데 해남에서는 가장 많은 4개 농장이 이름을 올렸다.

전남에서는 9개 한우 농장이 저탄소 인증을 받았고, 해남(4곳)에 이어 함평(3곳), 강진·진도(각 1곳) 등이 뒤를 이었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해 농가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때 인증하는 제도이다. 이 인증제는 유기·무항생제 등을 포함한 정부 인증을 받은 한우 농가 중 정부가 인정한 축산분야의 탄소 감축 기술을 1개 이상 적용해 생산된 축산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인증받은 농가는 한우를 조기 출하하고 탄소 저감 분뇨처리, 에너지 절감 시설, 도체중 향상 등 기술을 적용해 탄소 배출을 줄여왔다.

해남에서 저탄소 한우 인증을 받은 농장은 현우 농장과 만희농장, 이현농장, 행복나루터1 농장 등 4곳이다.

이들 농장은 유기 인증과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등 친환경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각종 인증을 받아왔다.

해남군은 저탄소 농업 확산을 위해 농가에 저탄소 농업기술을 보급하고, 다양한 주민 교육을 벌여

왔다.

저탄소 농축산물 판로를 넓히고자 고유 브랜드 개발과 홍보활동에 힘쓰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해 493ha 규모 저탄소 농산물 인증 면적을 확보하면서 전남 1위를 차지했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한우 시범사업은 올해 하반기(8월) 추가 모집하고, 내년부터는 축종을 양돈·낙농까지 확대하고 인증물량도 늘릴 계획이다.

한우 소비자는 저탄소 인증마크와 축산물이력시스템 개체 조회를 통해 저탄소 인증 농장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저탄소 인증 농가에 탄소 중립 직불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농가별 고유 기술을 담은 사례집 등도 제작·배포한다.

명원관 해남군수는 "이번 저탄소 축산물 인증은 지속 가능한 농업의 미래를 제시하는 좋은 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농업 부문에서 인증 품목을 확대하고 유통 지원을 강화하는 등 다방면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올해 정부가 처음 시행한 '저탄소 한우 인증' 시범사업에서 해남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4개 농장을 배출했다. 해남 현우농장 한우 사육 모습. <해남군 제공>

“무럭무럭 자라서 오렘~” 무안군 주꾸미 치어 방류

금어기 맞아 낚지 3만여마리도

무안군이 주꾸미 금어기(5월11일~8월31일)를 맞아 치어 7만마리를 바다에 방류했다.

무안군은 최근 망운면 장재항 인근 바다에 주꾸미 치어 7만마리를 방류했다.

방류한 치어는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자원조성연구소에서 인공부화 됐다.

연구소는 지난 2013년부터 해마다 무안군에 치어를 무상 지원하고 있다.

무안군은 주꾸미뿐만 아니라 낚지 금어기(6월21일~7월20일)를 맞아 어미낚지 2만8000마리를 방류하기도 했다.

이외 감성동·점봉어 치어 42만7000마리, 메기 9만2000마리, 민물장어 4400마리, 참치 1만6600마리 등을 방류했다.

또 무안의 대표 수산물 낚지자원 회복을 위해 낚지목장 4곳과 낚지 산란 서식장 6곳을 운영하고 있다.



무안군 관계자가 지난 3일 망운면 장재항 인근 바다에 주꾸미 치어 7만마리를 풀어주고 있다. <무안군 제공>

무안군 관계자는 "우리 군민들이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주꾸미와 낚지 금어기를 잘 지켜주고 있다"며 "어민 노력에 부응하기 위해 무안군은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목포·신안 통합 시 지역민 지원대책 발굴

지자체, 효과 분석 연구용역 착수...조례·예산 등 분석

목포시와 신안군이 '목포·신안 통합 효과 분석 연구용역'을 지난달 착수하고 지역민 지원대책을 찾아 나섰다.

두 자치단체는 지난달 목포·신안 통합 효과 분석 연구용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며, 민간 차원에서 활동 중인 통합추진위원회의 합동 간담회도 제안할 예정이다.

목포시는 올해 하반기 관련 부서장 협업 회의를 열어 교류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또 관련 법령과 조례, 소요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목포시는 목포·신안 통합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신안 농산물을 학교 급식 재료로 구매하고 있다.

목포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지난해 16억4000

만원 상당 신안 친환경 농산물을 사들였는데, 이는 전체 구입액(78억3000만원)의 21% 비중을 차지한다. 목포시는 목포교육지원청에 신안군 농산물 구매를 대폭 늘려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또 화장장 수탁 업체가 신안 섬 주민 교통 편의를 높여 운영할 방안을 찾을 방침이다.

목포 시민이 신안군 향로 여객선의 요금을 할인 받거나 신안군 공영버스를 목포 시내권으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두 자치단체는 충분한 논의와 조례 등 법적 뒷받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계곡물 흐르는 진도 사천리 물놀이장 개장

15일부터 입장객 무료 이용

진도 침철산 골짜기 물이 흐르는 '사천리 물놀이장'이 오는 15일 문을 연다.

진도군은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의신면 사천리 운림삼별초공원 안에 있는 '사천리 물놀이장'을 개장한다고 9일 밝혔다.

침철산 계곡물이 흐르는 사천리 물놀이장은 누

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쉬는 날 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연다.

물놀이장은 6700㎡ 면적에 3단 형태로 구성됐다. 다양한 모양의 물놀이장과 그늘집 등 휴식 공간을 갖췄다. 인근에는 국가지정 명승지 운림산방과 천연고찰 상계사, 삼별초 테마공원, 진도풍경 오토캠핑장 등이 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넥슨재단, 목포 어린이 재활센터 50억 기부

목포 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을 위해 넥슨재단이 50억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의료법인 목포구암의료재단 목포중앙병원은 지난 6일 넥슨재단과 '전남권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9일 밝혔다. <사진> 목포중앙병원은 지난 2021년 보건복지부 주관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 공모'에 선정돼 센터 건립을 추진해왔다. 국비 36억원과 도비 25억원, 시비 11억원 등 총 사업비 72억원을 확보했지만, 최근 사업비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넥슨재단이 50억원 기부 약속을 하기로 했다. 넥슨재단은 게임사 넥슨의 정보기술과 게임 IP(지적재산권)를 기반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하



는 비영리 재단이다.

전남권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는 목포시 석현동에 연면적 1731㎡(약 524평),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진다. 20개 병상을 갖추고 장애아동의 재활치료와 돌봄 등을 제공한다. 센터가 생기면 시설이 부족해 다른 지역까지 가서 치료 받아야 하는 섬 지역 아동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

멀고 먼 옛날의 사람들은 완행열차로 떠나갔는데



전원범 문학 인생 60년 기념 전원범 문학 전집(시·시조·동시·선집) 출간

전원범 문학 전집은 시 325편이 담긴 「망초꽃으로 서서」, 시조 214편으로 구성된 「선운사 동백꽃」, 동시 281편을 수록한 「동근해를 공굴리며」 그리고 대표작을 엄선한 「전원범 문학선 99」 등 총 4권이다. 전 시인은 1960년대부터 동시도 시가 꽤야 한다고 선구적으로 주창하고 '동심의 시'라는 개념을 정립해 오늘날 동시의 수준을 격상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 <연합뉴스> 2023. 4. 27.

그의 시론을 압축하면 '시는 어렵지 않아야 한다. 시는 일상의 말이 아니다. 시어는 시인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해석된 말'이라는 주장이다. - <뉴스1> 2023. 4. 29.

'해의 시인'이라는 별칭은 그가 발표한 연작시 '해'에서 비롯됐다. 모두 70여 편을 썼고 해를 자신만의 관점으로 형상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 <광주일보> 2023. 4. 26.

전원범 문학 전집 세트 총 4권, 100,000원

「망초꽃으로 서서」(시 전집) 「동근해를 공굴리며」(동시 전집)
「선운사 동백꽃」(시조 전집) 「전원범 문학선 99」(작품 선집)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 판매 중

타임기획 대표 전화 031) 915-0242
www.timecoms.co.kr

